

'작은 것이 아름답다'

어린이를 위한 작은도서관



서울 중랑구에 있는 파랑새어린이도서관.

어린이를 위한 작은도서관이 전국 곳곳에서 희망찬 싹을 틔우고 있다. 올초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름하여 '어린이 작은도서관 협의회'(회장 전영순). 전국에 흩어져 있는 13개의 어린이도서관 운영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강릉에 있는 '보람의 집'(대표 정지선)은 18년의 연륜을 자랑한다.

지역별로는 서울(3곳)과 경기(7곳)에 몰려 있고, 나머지는 부산·강릉·천안에 각 1곳씩 있다.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규모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뉜다. '문고'와 문고 아닌 것으로, 관련법규에 따르면 문고는 10평 이상의 공간과 1천권이 넘는 장서, 그리고 6개의 열람석을 갖추어야 한다. 작은 도서관 중에 문고의 요건을 갖춘 곳은 7곳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다.

전국 어린이 작은 도서관

지역	도서관 이름	대표(담당)	연락처
서울	글샘파랑새문고	박정래	579-3641
	꿈을 가꾸는 교실	엄화정	544-2970
	파랑새어린이도서관(문고)	전영순	209-0026
강릉	보람의 집(문고)	정지선	0391)648-6013
구리	반달 어린이도서관(문고)	민경자	0346)553-9275
성남	어린이도서관	심명숙	0342)732-7004
수원	열린도서관(문고)	김순례	0331)47-1935
	샘물 어린이도서관	이영애	0331)297-6532
	숲속 나라	권미숙	0331)39-5555
	잠잠이(문고)	이미경	0331)45-6870
평택	동화나라	최해숙	0333)666-3430
부산	들꽃이야기(문고)	김숙	051)621-9577
천안	유송 어린이도서관(문고)	전은경	0417)574-8475
개인		이정아	032)467-3382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은 우리 사회의 도서관 문화가 척박하기 때문. 하지만 출생의 배경은 그대로 작은도서관이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동사무소의 남은 공간을 빌려쓰려는 시도는 묵살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문고 관련 예산도 새마을문고에만 지원된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부족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 시설교습소 취급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꺼린다. 심지어 투자의 대상으로 점찍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다.

관에 대한 이해부족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 시설교습소 취급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꺼린다. 심지어 투자의 대상으로 점찍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다.

'파랑새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전영순 씨(43)는 "생각보다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한 면이 아쉽다. 처음에는 '저 사람 무슨 꿈이 속이 있지 않느냐'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여섯명 정도 날마다 오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애들이 책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이라고 덧붙인다. 전씨는 작은도서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료집과 도서관에 구비할 책 목록을 만들 생각이다. 여름방학에는 회원들과 함께 가장 오래된 '보람의 집'을 찾아 의욕을 다질 계획도 갖고 있다.

〈최성일〉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책만 만든다

어린이책 기획·집필집단

최근 주목받고 있는 어린이책 기획·집필집단은 저마다 강한 개성을 갖고 있다. 아동 문학상을 공동수상한 동화작가들의 모임도 있고, 생업에 몰두하다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케겔라처럼 모이는 집단도 있다. 대개 어린이책 출판사에서 일한 경험을 자산으로 갖고 있는 이들은, 일컫는 이름과 해운 작업은 제각각이지만 '꼭 필요한 어린이 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만큼은 똑같다.

〈종알 종알 말놀이 그림책〉, 〈나라마다 하나씩 30나라 옛이야기〉 등 참신한 기획물을 내놓은 '보물섬'(대표 허은미)은 0세부터 6세 정도의 연령층이 볼 수 있는 그림책을 주로 기획한다. "어느 연령대보다 부모들의 요구가 많은데도 저연령 대상의 국내 그림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모임을 이끄는 허은미씨의 말이다.

얼마전 내놓은 〈종알종알 말놀이 그림책〉은 단순한 문장과 운율, 반복구조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말의 어휘와 문법을 터득하도록 한 유아용 언어개발 그림책이다.

어린이책 기획집단은 아무래도 글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다. 정음사의 '머리곰, 노파곰'을 응용하여 어린이의 사고와 상상력을 멀리멀리 확장시키고 자신감을 높이높이 향상시킨다는 뜻의 '곰곰'(대표 추교원)은 95년 출발해 그동안 과학시리즈물을 많이 펴냈다.

〈아이런 과학동화〉, 〈창의성과 과학적 사고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워크북〉, 〈아이런 수학동화〉 등 아동의 발달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에 주력한다.

최근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펴낸 '또래나라'(대표 이명원)와 창작동화집 〈아빠! 사랑해요〉를 내놓은 '몽당연필'(대표 박경태)은 모임의 독특한 성격으로 관심을 끈다.

동화작가들의 모임인 몽당연필은 95년 '계몽사 아동문학상' 공동수상자 박경태, 차보금, 박신식, 송은영 4명이 팀을 이뤘다. 젊고 작품세계도 비슷해 합평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다가 기획·집필을 하게 됐는데,



저연령층 그림책을 주로 기획하는 '보물섬'.

출판사의 요청보다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기획회의로 이어진다. 첫 작품집 〈아빠! 사랑해요〉를 펴냈는데, 박경태씨는 "유행이나 상업성보다 언제나 같은 수준의 작품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며 소박한 바람을 밝힌다.

'또래나라'도 비슷한 종류의 책이 양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그래서 모인 지 2년이지만 내놓은 책은 〈내가 되고 싶은 나〉 한종뿐이다. 기획기간과 취재기간만 꼬박 2년이 걸린 이 시리즈는 문장이나 내용에서 고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이 모두 모여 토론하는 정련과정을 거쳤다.

이명원씨는 "전문기획집단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책 가운데는 상업적 의도가 뻔한 기획자 자신을 위한 책이 많다"며 어린이 책 기획을 생업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출판사의 요구보다는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엄격한 자기검열을 통해서만 책을 내놓을 생각이다.

— 이현주 기자

어린이책 기획·집필집단

이름	대표	연락처
우리누리	배성호	324-1880
햇살과 나무꾼	강무홍	324-9704
도토리	이태수	389-5206
재미마주	이호백	338-7953
보물섬	허은미	745-5095
곰곰	추교원	714-1451
또래나라	이명원	015-116-0848
몽당연필	박경태	0343-96-8397